

2011.08.16 미래정책연구실

## □ 미국, 올에 파머스마켓 1천 개 이상 신설

### 1. USDA(2011.08.05) 주요 내용

- USDA는 2011년 미국 전역의 파머스마켓 수가 7,175개로, 2010년 6,132개보다 1천 개 이상(전년 대비 17%) 신설되었다고 발표함.
- 2011년 전국 파머스마켓 자료(National Directory of Farmers Market) 결과는 지난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열린 파머스마켓 주간 행사(National Farmers Market Week)에서 빌색(Vilsack) 장관이 발표함.
  - 이번 발표자료에 따르면, 2010년 이후 파머스마켓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서부와 북동부의 여러 주에서 파머스마켓 수가 급증하였음. 특히 알래스카주와 텍사스주는 각각 전년대비 46%, 38% 증가함.
- USDA 캐서린 메리건(Kathleen Merrigan) 차관은 '파머스마켓의 개소수 증가는 미국 내 로컬푸드의 막강한 영향력을 반영하는 긍정적 지표라고 볼 수 있으며,
  - 파머스마켓이 생산자에게는 농업경영체 성장을 통한 경제적 이윤 창출을, 지역사회에는 신선한 청과·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, 미국 식품 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'고 발표함.
- 한편, 파머스마켓 매니저들의 보고자료에 따르면, 푸드스탬프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전체의 12%로, 전년 대비 16% 증가한 수준임.
  - 파머스마켓의 푸드스탬프 활용 실적에 대한 자료는 통계 구득이 불가능하나, USDA 식품영양센터(FNS; Food and Nutrition Service)자료에 따르면, 2010년 파머스마켓과 직거래 식품소매점포에서의 푸드스탬프 활용 실적은 총 750만 달러, 453,711명이 활용하여, 평균 구입금액은 16.69달러인 것으로 나타남.

## □ USDA, 축산물 이력추적제 전면 실시 법안 입법예고

### 1. USDA, WSJ(2011.08.09) 주요 내용

- USDA는 가축 질병 발생 시 신속히 원인을 파악·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축종에 대해 축산물 이력추적제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출함.
  - 법안이 통과되면 생산자들은 이동 시 고유인식번호 부착 의무화
  - 이력추적제 도입을 통해, 주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질병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, 이동제한과 수출중지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, 국가경제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힘.
- USDA 빌색(Vilsack) 장관은 이력추적제 도입은 2003년 광우병 최초 발병 이후 미국 축산유통시스템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온 외국의 바이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,
  - 또한 기존에 축산물 이력추적제를 실시해온 국가들의 경우, 가격 프리미엄을 획득하는 한 방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함.
- 수출업자와 패커 등 유통 관련 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법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, 생산자단체는 과도한 비용 소요나, 잠재적인 부채 증가, 고유번호 낙인 등 시행 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.
- 소생산자협회(National Cattlemen's Beef Association)는 이번 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이력추적제 도입을 지지하며, 의견 표명에 앞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함.
  - 또한 돼지생산자협회(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)는 국제 돈육시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.